

악기 연주동사 의미 연구

조일영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ciykw@knue.ac.kr)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한국교원대학교 KNUE 학술연구지원금에 의한 연구이며, 2012 한국 국어교육학회 제1차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하였음.

- I. 머리말
- II. 연주동사의 유형과 의미 범주
- III. 연주동사 의미 양상
 - 1. 현약기의 경우
 - 2. 타약기의 경우
 - 3. 관약기의 경우
- IV. 맺음말

I. 머리말

인간언어의 근본적인 특성 중의 하나인 다의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데 S. Ullmann은 다섯 가지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적용의 전이, 사회환경의 특수화, 비유적 언어, 동음어의 재해석, 외국어의 영향 등이 그것이다(Ullmann 1962: 159~167). 이 중에서 본고에서는 주로 비유에 의해 발생하는 다의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들 단어들이 다의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 유연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크지 않지만 유연성이 약해질 때는 직관적으로 의미 간의 유사성 또는 관련성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는 과정을 추적해 볼 때 동일한 의미범주로 묶여지는 단어들 간에는 공통적인 의미 속성이 의미 분화의 경계점이 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약기연주동사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연주동작의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에 대해 인지의미론적 고찰을 함으로써 어휘소들의 범주형성 양상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해당 동사들의 기본의미와 확장된 의미의 비교를 통하여 의미의 확장 과정을 살피고 확장의미의 의미

범주에 해당하는 동사들에 대하여 의미적 관련성을 점검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국어교육에서 어휘지도에 대한 필요성이 자주 논의되고는 있지만 국어교육과정상에는 그다지 비중 있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런 의미 분화의 경계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인식과 다의어의 확산 등과 같은 언어학적 현상을 통해 전략적으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II. 연주동사의 유형과 의미 범주

악기 연주동사는 기본적으로 악기를 이용하여 소리를 내는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로서 주로 악기의 면이나 선이나 좁은 공간을 진동시키는 동작을 표현한다. 그런데 이들 동사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행위의 반복이나 지속을 통해 음악적 의미를 획득하면 [演奏]의 의미를 보유하면서 구체적인 동작에 따라 다른 형태로 구분이 된다.

연주행위와 관련된 단어를 살펴보면 의미적으로는 ‘놀다’와 가장 관련이 깊다. 왜냐하면 ‘놀다’의 사전적 의미는 자동사로서 [樂]의 의미가 첫째로 등장하고 타동사로서의 ‘놀다’도 ‘~을 놀다’의 형태로 ‘즐기다’의 의미가 기본이다. 두 의미 모두 타의성이 배제된 채로 즐거움을 누리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국어사전에 제시되는 ‘놀다 1’의 의미는 영어의 ‘play’의 의미와 유사하게 [樂]의 의미를 보유한다¹⁾. (예를 들면, someone

1 금성관 국어대사전(1996)에서는 ‘놀다’ 항목에서 1. (자동사일 경우) ① ‘직업이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재미있고 즐겁게 하다’, ② ‘(사람이) 공부나 업무 등의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가지다’, ③ ‘(사람이) 공부나 업무 등을 제쳐 놓거나 알차게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다’ 등의 의미가 11가지로 제시되어 있고, 2. (타동사의 경우) ‘(옷 따위를 던지거나 굴리어) 승부를 겨루다’의 의미가 제시되어 있다.

play the piano.) 다만 국어에서는 ‘~을 하고 놀다’의 형태로 표현하며 세분된 형태로 ~을 치다/타다/켜다/불다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화투를 하고 놀다’, ‘가야금을 타며 놀다’, ‘놀음을 놀다’, ‘탈춤 한판을 신명나게 놀다’등.) 이는 모든 예술적 표현행위는 기본적으로 놀이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하며, 나아가서 즐거움, 즉 [樂]의 의미요소가 개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런 연주동사는 그 의미의 출발이 악기를 연주하기 위한 기본 동작들이며 이런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가 악기를 대상으로 하는 문장구조에서는 [演奏]의 의미로 투사된다. 물론 이런 연주의 의미는 해당 동작의 결과 발생되는 것임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불다’, ‘타다’, ‘켜다’, ‘치다’에 공통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악기 연주동사는 일차적인 동작의미보다는 이차적 의미로서 악기 연주의 상황에서 악기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다. 즉 이들 악기 연주동사는 일반적인 동작동사 ‘치다’, ‘타다’, ‘켜다’, ‘불다’등이 동작의 대상이 악기일 때 형성되는 층위의 동사들로서 모두 [奏]의 의미 범주로 묶인다. 국어사전들에서는 이러한 의미적 연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사전의 표제어에는 항목을 달리하여 동음이의어로 제시되어 있다.

한편, 국어에서 연주행위를 의미하는 동사는 악기 종류에 따라 세밀하게 갈라진다. (1ㄱ)의 예문을 보면 악기에 따라 연주행위를 표현하는 동사로서 각각 다른 단어가 쓰인다. 이에 비해 (1ㄴ, ㄷ)의 영어나 프랑스어에서는 기본적으로 ‘play’에 해당하는 동사가 쓰인다.

(1) ㄱ. 영호는 피아노를 치고 철수는 나팔을 불고 민희는 거문고를 탔다.

ㄴ. someone play musical instrument.(영어의 예)

ㄷ. jouer du violon(불어의 경우)

위의 (1ㄱ)예문에서 사용된 ‘치다, 붙다, 타다’는 기본적으로 타동사이며 주체의 행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이 각각의 악기들이다. 영어의 경우, 이들 악기들의 연주행위는 모두 ‘play’로 통용될 수 있다(1ㄴ). 붙어의 경우도 (1ㄷ)처럼 보통 ‘jouer’로 표현된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는 현악기의 연주는 ‘타다’나 ‘켜다’로 표현되고, 타악기의 연주는 ‘치다’, 관악기의 연주는 ‘붙다’의 동사가 사용된다. 이들 연주동사의 바탕의미를 보이는 동사 ‘놀다’는 직접 악기에 적용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들 동사들은 연주악기에 의해 제한을 받아 서로 통용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2)와 같다.

- (2) ㄱ. *영호는 피아노를 놓고 철수는 나팔을 놀며 민희는 거문고를 놀았다.
 ㄴ. *영호는 피아노를 켜고 철수는 나팔을 타고 민희는 거문고를 쳤다.

국어에서 이들 동사는 해당악기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타동사이며 그 동작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이 악기들이 된다. 이들 동사들이 요구하는 논항구조는 다음과 같다.

- (3) X가 Y를 (Z로) 타다/켜다/치다/붙다
 X: 유정명사
 Y: 무정명사(악기)
 Z: 무정명사(도구/수단)

만약 위와 같은 구조에서 벗어나면 비문이 되며 따라서 아래의 예(4)는 특별한 상황맥락에서가 아니면 비문이다.

- (4) * 바위가 가야금을 탄다/켄다/친다/분다.

(4)에서 서술어가 동작동사이므로 무생물이 동작의 주체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지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다음의 경우는 정상적인 의미를 드러낸다.

- (5) ㄱ. 영희가 바이올린/해금/첼로를 켜다.
- ㄴ. 순희가 거문고/가야금을(를) 탄다.
- ㄷ. 철수가 드럼/북/종을 친다.
- ㄹ. 상수가 피리/클라리넷/나팔을 분다.

그런데 (5)에 등장하는 연주동사들은 악기의 유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한된다. 특히 (5ㄱ, ㄴ)의 경우는 같은 현악기 종류임에도 연주방식에 따라 선택적이다.

결국 악기연주는 국어에서 이 네 가지 연주동사에 의해 표현된다. 그 외에도 ‘두드리다’, ‘문지르다’, ‘때리다’ 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이는 연주방식의 세밀한 표현으로서 앞의 네 동사같이 대표적인 연주동작이라고 볼 수 없다.²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이들 연주동사들은 [樂]의 범주에 속하며 확장된 의미로는 [奏]의 의미범주에 속함으로써 ‘연주동사’군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겠다.

III. 연주동사 의미 양상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언어에 있어서 다의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생활에서 기억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제성과 인지적 유연성을 위한 수단

2 국악에서는 세밀한 동작에 따라 현악기의 경우 찰현(擦絃-문지르다/비비다), 탄현 [(彈絃(털다)타다)] 등의 용어를 쓰기도 한다.

이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단어의 용법은 확대되기 마련이다. 단일한 형태에 대하여 고정된 의미가 주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인지적 관점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원형적 의미를 바탕으로 확장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인지과정 속에서 자연스런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임지룡, 1997: 216).

대체로 다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공통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고전주의 관점의 의미론자들의 주장이라면 의미연쇄와 의미망 구조에 의해 다의어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인지주의 관점의 의미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의 확장 양상은 사람에서 무생물로, 공간에서 추상으로,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일반에서 관용으로, 내용에서 기능으로의 확장성을 보이는데, 연주동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구체적인 동작에서 추상적인 동작으로 확장된다는 점이다(Langacker, 1987: 372~373 참조).

이 장에서는 개별 연주동사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악기의 형태에 따라 현악기와 관련된 연주동사는 ‘타다’, ‘켜다’, ‘뜯다’, ‘치다’, 타악기와 관련된 연주동사는 ‘치다’, ‘두드리다’, ‘울리다’, 관악기와 관련된 연주동사는 ‘불다’ 등이 있다.

이들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신체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따라서 이들 단어들의 원형의미는 특정 대상(악기)에 대하여 가하는 신체적인 움직임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동사들이 가지는 본래의 기본의미로서는 동일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악기 연주행위의 의미를 드러낼 수 없다. 즉, 단순히 ‘(악기를) 치-’는 일차적 행위로서는 ‘(악기를) 연주하’는 이차적 의미를 끌어낼 수 없다. 그래서 사전에서는 신체동작을 의미하는 ‘타다’와 연주동작을 의미하는 ‘타다’는 형태만 같고 의미가 다른 표제어로 취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다른 ‘불다’, ‘타다’의 경우에도 같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점을 주목하여 악기별로 해당 연주동사의 의미확대 양상을 살펴본다.

그런데 이들 연주동사는 악기의 종류에 따라 동사가 고정되어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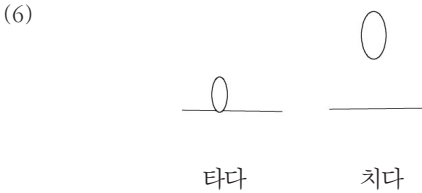
같지만 실제로는 악기에 작용하는 구체적인 동작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악기는 한국어에서 ‘타다’나 ‘켜다’의 동사가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기타의 경우는 ‘치다’가 쓰인다. 또 건반악기인 피아노의 경우도 피아노 현을 울려서 소리 내지만 먼저 건반을 두드리는 동작에 초점이 주어져 ‘치다’가 쓰인다. 한편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이 현과 현을 맞대어 문지르는 현악기에는 동사 ‘켜다’가 쓰이는데, 국악기의 경우도 해금이나 아쟁 같은 경우 ‘켜다’가 사용된다. 기타의 경우 가야금이나 거문고처럼 왼손으로 현을 짚고 오른 손으로 현을 통기거나 뜯는 동작을 하는데, 거문고는 술대를 사용하여 현을 통기고 기타와 가야금은 손가락으로 현을 통기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와 같이 같은 동작으로 현을 통기거나 뜯는데 각기 다른 동사로 연주 동작을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현상을 인지적 관점으로 설명한다면 사물과의 관계에서 대상악기와 접촉하는 부위에 대한 활성화 지역의 차이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하는 언어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거문고나 가야금을 연주할 때 연주자와 악기 간의 관계서술이 연주동사라고 하면 악기 전체에서 활성화되는 지역은 왼손이 현과 닿는 부분이 된다. 즉 연주동작에서 악기는 지표가 되고 연주자의 몸이 탄도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왼손가락과 현이 활성화 지역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문고를 연주한다’는 것은 탄도체인 연주자의 몸이 지표인 거문고에 전체적으로 접촉되는 것이고, ‘거문고를 탄다’는 표현은 ‘타다’서술어에 잠재되어 있는 연주자의 손가락이 거문고의 선에 닿아 있는 모습이 된다. 그러나 실제 언어표현은 악기 전체의 모습만 드러나고 있다. 말하자면 탄도체와 지표의 활성화 지역과 모습이 불일치되어 축소 지칭의 원리에 의한 환유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악기 연주동사 모두에 적용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만약 거문고를 ‘뜯는다’는 표현을 한다면 손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 ‘탄다’의 세부적인 표현이 된다. 그래서 거문고나 가야금은 ‘친다’는 표현이 어색하게 되지만, 기타의 경우는 같은 동작이라도 오른 손의 동작이 일시적으로

현에 부딪치는 모습이 부각된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6)에서 선으로 표시된 악기가 그 위에 있는 연주자의 손과 붙어 있는 것은 ‘타다’의 모습이고 떨어져 있는 것은 ‘치다’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거문고와 가야금의 현을 진동시켜 소리가 나는 것이지만 표현상에서는 ‘거문고를 타다’거나 ‘가야금을 타다’고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타다’의 의미 중 1차적으로 ‘어떤 행동주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위에서 손으로 누르’는 동작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문고는 술대로 현을 누르거나 통겨서 소리를 내지만, ‘거문고를 친다’거나 ‘거문고를 뜯는다’는 어색하고 손으로 ‘가야금을 뜯는다’는 어색하지 않다. 이는 실제 연주동작에서 현에 닿아 소리의 변화를 주도하는 손의 움직임에 초점이 닿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치다’의 경우는 행동주가 어떤 도구나 손을 이용하여 면이나 선에 순간적으로 닿았다가 떨어지는 동작을 나타내며, ‘붙다’의 경우는 입을 도구로 사용하여 특정한 공간 안에 바람을 지속적으로 불어넣는 동작을 하게 된다.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현악기 중에 ‘타다’의 의미로 표현되는 연주동작은 탄주(彈奏), ‘치다’의 의미로 표현되는 연주동작은 타주(打奏), ‘붙다’의 의미로 표현되는 연주동작은 취주(吹奏)를 의미하게 된다. 이들 의미들은 그 소리를 내는 원천이 각각 손(手)과 줄(弓), 입(口)으로서 한자에 부수로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다.

대체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악기의 유형에 따라 ‘타다’, ‘켜다’, ‘치다’, ‘붙다’ 동사들이 사용되긴 하나, ‘타다’와 ‘켜다’는 현악기에만 적용되는 동사이므로 기존의 악기 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현악기 연주동사, 타악기 연주동사, 관악기 연주동사로 구분하는 것이 논의 상 편할 것 같다.

1. 현악기의 경우

현악기 관련 연주동사는 다음의 예가 해당되는 예문들이다.

- (8) ㄱ. 거문고를 타다.
- ㄴ. 가야금을 뜯다.
- ㄷ. 기타를 치다.
- ㄹ. 해금을 켜다.

(8ㄱ)과 (8ㄴ)에서는 ‘타다’로는 통용될 수 있으나 (8ㄱ)에서 ‘타다’대신에 ‘뜯다’로는 대체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유형의 악기에서는 ‘타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8ㄷ)과 (8ㄹ)의 연주동사는 특별한 연주기법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8ㄱ, ㄴ)의 경우에 대체될 수가 없다.

한편 이들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해당 동사의 가장 단순한 동작을 표현할 때 드러난다. 즉, ‘타다’의 경우는 대상악기의 줄을 통기거나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 동작으로 [彈]이 기본 의미이다.³

3 국어사전(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동사 ‘타다’의 의미는 11개의 표제어로 제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연주동사와 의미적으로 관련 있는 것들만 추리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할 것이다.

-타다2: ①탈 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 ②1)도로, 줄, 사, 나무, 바위 따위를 밟고 오르거나 그것을 따라 지나가다. 2)어떤 조건이나 시간, 기회 등을 이용

현악기의 몸체 중 연주동사 ‘타다’에서 부각되는 활성화 지역은 줄(絃)이고 다른 지역은 참조점 혹은 배경으로 등장하게 된다. 실제로 현을 건드리는 것은 술대이지만 우리의 지각작용은 현 또는 손가락에 집중된다. 악기의 나머지 부분은 참조점에 불과하다. 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곳이 손이 닿는 곳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8ㄴ)의 현을 ‘뜯다’는 표현은 부분적인 동작을 인지할 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뜯는다’는 동작은 현에 대고 있던 손가락으로 어떤 대상을 안에서 밖으로 뽑아내거나 잡아 빼내는 동작으로서 손가락 끝에 초점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어원적인 연원을 참고하기 위해 현대국어 ‘타다’와 관련 있어 보이는 중세국어 자료를 찾아보면 ‘· ㅌ · 다’, ‘· ㅍ · 다’, ‘ㅍ다’ 등이 고어사전에 제시되어 있다.⁴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9) ㄱ. 寶位 ㅌ실 느지르샤다(是寶位將登之祥(龍飛御天歌100))

하다. 3)바람이나 물결, 전파 따위에 실려 퍼지다. 4)바닥이나 미끄러운 곳에서 어떤 기구를 이용하여 달리다. 5)그네나 시소 따위의 놀이 기구에 몸을 싣고 앞뒤로, 위아래로 또는 원을 그리며 움직인다. 6)의거하는 계통, 질서나 선을 밟다.

-타다5: ①박 따위를 톱 같은 기구를 써서 밀었다 당겼다 하여 갈라지게 하다. ②줄이나 끈을 내어 두 쪽으로 나누다. ③쿵, 팔 따위를 멧돌에 갈아서 알알이 쪼개다.

-타다6: 악기의 줄을 튕기거나 건반을 눌러 소리를 내다.

-타다10: ‘가르다’의 방언(경북)

이 중에서 연주동사의 경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는 ‘타다6’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타다2’와 ‘타다5’와의 관련성을 논의한다.

4 이렇게 특정한 단어들이 가지게 되는 의미의 근원을 찾을 때 그 단어들의 발달과정을 추적해서 어휘적 근원과 그것들이 사용된 문맥을 두루 점검해 보는 것은 비록 소득이 적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통시적 접근의 시각은 일견 의미의 연관을 찾는데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시도는 언어학적인 이론의 설명력을 높이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Joan Bybee, Revere Perkins, William Pagliuca의 *The Evolution of Grammar*(1994)에서 언급된 바 있다(박선자·김문기 옮김, 2010:27~28참조).

- ㄴ. 흔 들 트고 꺄 솔 벼 르 들 쫓 낫 다(匹馬逐秋風)(杜초八38)
 ㄷ. 거 믄 고 뵈 고 하 늘 과 싸 홀 보 더 라(彈琴視天壤)(杜초二十四38)
 ㄹ. 비 를 뵈 고 믄 스 들 세 히 내 야(月印釋譜二十三73)
 ㅁ. 도 적 이 건 저 내 여 비 를 뵈 니 라(賊拯出刳腹)(東國新續三綱行實圖烈四12)
 ㅂ. 내 모 로 매 썩 노 라(自須彈)(杜詩諺解 重刊本十一)

위의 예에서 (9ㄹ)‘비 를 뵈 고’는 ‘쫓개다’의 의미이고 (9ㄷ)‘거 믄 고 뵈 고’와 (9ㄴ)‘썩 노 라’는 ‘뿔’의 의미이다.⁵ 이들 동사는 구체적으로는 각주 3)의 ‘타다’의 의미가 원형적인 의미이어서 ‘신체일부가 대상의 위에서 아래로 접촉’하는 원형의 의미인데, ‘짐승을 타다(騎), 자동차, 배 등 기계를 타다(乘), 산을 타다(登), 바람 또는 분위기를 타다(載), 줄을 타다(踏)’의 의미로 확장된다.

한편 ‘치다’는 악기와 떨어진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줄에 순간적인 힘을 가했다가 떼는 동작이기 때문에 (8ㄷ)의 기타는 ‘치다’로 표현한다. 그래서 건반악기인 피아노의 경우에는 ‘치다’동사가 사용되는 반면, 같은 건반악기이지만 오르간의 경우 ‘타다’가 사용된다.

- (10) ㄱ. 철수가 피아노를 친다.
 ㄴ. 영희가 오르간을 탄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피아노는 건반을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는 동작으로 소리를 내는 반면 오르간은 건반을 지속적으로 누르는 동작으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10ㄴ)의 ‘타다’의 동사가 쓰인다.

한편 (8ㄹ)에 쓰인 ‘켜다’의 경우 현악기는 동일하나 연주수단이 손이나 스텔대가 아니라 활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악기뿐만 아니라 서

5 ‘타다’은 다음과 같은 표기변화가 있었다. 타다- 동(타) 악기를 튕겨 소리를 내다[어원 미상. 변화 뵈다(월석 8: 40) > 썩다(두해 중 11: 8) > 트다(박신1: 6)] > 타다.

양악기에 대해서도 ‘켜다’를 사용하는데, 이는 ‘타다’의 의미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활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지만 현을 누르는 동작에서 모두 접촉성 동사라는 데 공통점이 있다.⁶ 왜냐하면 각주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전에 제시된 ‘타다’의 뜻풀이 중 ‘타다5’의 의미도 대상물체에 접촉하여 힘을 가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양상이기 때문이다. ‘줄을 타다’의 의미와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사전에 제시된 ‘켜다’의 뜻풀이 중 ‘켜다2’의 풀이에서 ②의 ‘악기의 줄을 대고 문지르는 행동’은 ‘켜다2’의 풀이 ①의 ‘나무를 세로로 톱질하여 쪼개다’의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톱질하는 행동이 밀고 당기는 동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 ‘타다5’의 ①‘눌러서 갈라지게 하는 동작’은 ‘켜다2’의 ‘당기는(引) 동작과 관련 있고, 이는 ‘썰다’와의 관련성을 생각할 수 있다. 칼로 무나 채소를 자를 때 ‘썰다’의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는 톱으로 밀고 당기는 ‘목재를 켜는’동작과 유사하다.⁷

그리고 비약일지도 모르지만, 고어에서 불을 켜는 것을 ‘히려’로 표현한 기록이 있는데 구개음화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⁸ 실제로 경상도 방언에서는 불을 켜는 것을 ‘쓴다(點火)고 표현한다. 현대국어에서도 불을 붙이는 일을 ‘불을 당긴다’고도 표현하는데, ‘켜다’와 ‘히려’와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음상의 유사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서 의미적 관련성은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어떤 사물을 ‘위에서 접촉하여 비비거나 문질러 자르는’ 동작을 출발점으로 하여 연주행위의 의미로 확장되고 있는 것은 의미연쇄의 확장현

6 국어대사전에는 켜다2의 항목에 ‘①나무를 세로로 톱질하여 쪼개다. ②현악기의 줄을 활로 문질러 소리를 내다.’ 등이 해당되는 항목인데, 필자는 켜다1 ‘불을 밝히거나 성냥따위로 불을 일으키다’도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추정한다.

7 바닷물이 들고 나는 것을 밀물과 썰물이라고 하는데, 이와와 관련성도 생각할 수 있다.

8 혀다: 켜다[點火] 등잔불 혀 오라(點)(朴通事諺解 重中 8), 燈의 불 혀고(釋譜詳節 九30) 혀다 혀다[彈] 奚琴을 혀거를 드로라(樂章歌詞 靑山)

상의 결과로 보이며 그런 점에서 각주5)에서 사전의 별개 항목으로 제시되는 ‘타다2’의 대표적 의미가 원형적 의미라고 하면 ‘타다6’은 의미연쇄의 결과로 간주된다. 또 각주 6)에서 ‘켜다2’의 ①과 ②등은 의미 확장에 의한 의미연쇄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타다’는 손을 도구로 하고 ‘켜다’는 활을 도구로 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현을 눌러 소리를 내며 활성지역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결국 [선][진동][접촉]의 의미에 [지속]의 과정을 거쳐 [奏]의 의미범주에 편입이 된다. 그리고 기타의 경우는 [지속]대신에 [순간]이 부각된 것이다.

2. 타악기의 경우

‘치다’의 경우 어떤 대상을 특정 도구나 수단으로 치는 동작에 해당하는 것이 ‘치다’의 기본의미 [打]이다.⁹ 통시적으로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시기로 넘어오면서 ‘타다’치다’의 변화를 입게 되는데 다음과 같다.

(11) ㄱ. 붓 터 사르 물 모도오디<釋譜詳節六28>[打擊]

ㄴ. 衣冠 나터 붓 터거늘 니러 가눅다(衣冠起暮鍾)<杜초二十三26>

ㄷ. 채 천(鞭)<杜詩諺解重刊十二10>[打]

ㄹ. ㄱ르 쓴혀 치다(橫擊)<漢清文鑑110c>[打]

(11 ㄱ, ㄴ)처럼 ‘치다’는 악기와 공기할 때 [打奏]의 의미로 변하게 되는데 타악기는 합주일 때는 [演奏]의 의미로 쓰이지만 (11 ㄷ, ㄹ)같은 ‘치다’의

9 국어사전에서는 ‘치다’의 뜻풀이 중에서 ‘치다2’에 해당하는 ‘①손이나 손에 든 물건이 세게 닿거나 부딪게 하다’와 ‘②’손이나 물건 따위를 부딪쳐 소리 나게 하다’의 풀이가 여기서 논의되는 의미에 가장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③손이나 손에 든 물건으로 물체를 부딪게 하는 놀이나 운동을 하다.’도 관련이 있으나 2차적인 의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미일 때는 악기가 연주가 아니라 신호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현대국어에서 타악기의 경우는 특정한 도구나 손으로 악기의 면이나 몸체에 순간적인 힘을 가함으로써 소리를 내는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로 ‘치다’를 사용한다. ‘치다’외에 ‘두드리다’도 같은 연주동사에 넣을 수 있지만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다.

(12) ㄱ. 북을 치다.

ㄴ. 대북을 두드리다.

위의 (12 ㄱ)에서 동사 ‘치다’[打]의 의미로서 북과 함께 쓰여 타주[打奏]의 연주 의미로 쓰이는데, (12 ㄴ)에서 동사 ‘두드리다’는 (12 ㄱ)보다 작은 어감과 함께 연속적인 동작을 표현함으로써 반복성의 의미가 있다. (13)은 악기의 몸통을 치는 경우의 예이다.

(13) ㄱ. 트라이앵글을 치다.

ㄴ. 편경을 울리다.

이들 타악기의 연주행위는 공통적으로 악기의 한 쪽 면이나 몸체를 순간적으로 가격하는 동작인데 현악기의 ‘켜다’와 달리 지속적인 접촉은 악기 연주를 불가능하게 한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소리를 낼 때 악기의 연주 의미 [奏]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앞의 경우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 현악기임에도 기타와 피아노는 ‘치다’의 동사를 선택하게 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어쨌든 ‘치다’의 의미는 [면][순간][타격]의 의미에 동작대상이 악기가 됨으로써 [반복]의 과정을 거쳐 [奏]의 범주로 편입된다.

을 유지할 때 비로소 연주의 의미를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놀다’의 연주동사는 [吹]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는데 [공간][진동]의 의미에 [지속]의 과정을 거쳐 악기가 동작의 대상이 될 때 [奏]의 의미범주로 편입된다. 그리고 다른 타악기 연주동사나 현악기 연주동사에 비해 연주동작이 단순하다.

지금까지 악기들을 연주할 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동사들을 의미 속성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들 동사들은 연주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구체적인 신체동작의 의미로부터 의미 확장을 거쳐서 추상적인 ‘연주하다’의 의미로 확장된다. 즉 [吹], [打], [彈]의 원형의미에서 출발하여 ‘놀다’[戲]의 바탕 의미에서 각각의 악기 연주 형태에 따라 [반복성]과 [지속성]을 얻음으로써 추상적 의미인 [演奏]의 의미로 확장된 상태로 남게 되는 공통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 동사들이 기본동작의미에서 [戲]의 의미를 획득하여 연주동사로 되는 유사한 양상은 다른 경기(競技)동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16) ㄱ. 탁구를 하다/친다.
- ㄴ. 볼링을 하다/친다.
- ㄷ. 테니스를 하다/친다.
- ㄹ. 딱지를 친다.
- ㅁ. 화투를 친다.

이들의 경우에는 모두 ‘탁구’, ‘볼링’, ‘테니스’, ‘딱지’, ‘화투’의 대상물을 가지고 다른 대상에 부딪게 하는 동작에서 놀이의 의미가 부가되면 [놀다]([戲])의 의미로 변환된다.

그런데 한국어의 연주동사들에 비하여 외국어의 연주동사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모두 한자어에서 동작의 원천이 제시되고 있다. 일본어에서 현악기의 경우 ‘彈く(ひく)’가 한국어의 ‘켜다’, ‘타다’,

‘치다(피아노 포함)’에 해당되고 관악기의 경우는 ‘吹く(ふく)’가 한국어의 ‘불다’, 타악기의 경우 ‘叩く(たたく)’가 ‘치다’, ‘두드리다’등의 의미에 해당하며 이들 동사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의 동사는 역시 ‘演奏(えんそう)する’로 통합되어 사용된다. 현악기에서 한국어는 연주동작에 따라 동사를 달리하는데, 일본어의 경우는 현악기 연주동사가 ‘ひく’로 통합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영어를 비롯한 인공어에서도 연주의 의미는 ‘(someone) play musical instrument’의 형식으로 통합된다. 그러나 영어의 경우, ‘play’가 기본적인 연주 동사이지만 한국어처럼 악기나 연주동작에 따라 세분되지는 않는다. 독일어에서는 세부적인 악기형태에 따라 약간씩 다른 동사를 사용하는데, 현악기의 경우 ‘(mit der Bogenstange) streichen (활로) 켜다’, ‘(Harfe) zupfen (하프)를 뜯다’, 타악기의 경우 ‘(Trommel) schlagen (북을) 치다’, 관악기의 경우 ‘(Floete) blasen (플루트를) 불다’로 상세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하나 대부분의 연주동사는 ‘play musical instrument’로 대체 가능하다. 참고로 다음에 보이는 것은 불어에서 연주동사들의 분포양상이다. 대체로 독일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17) ① 현악기의 경우

- the violin: violoner = jouer du violon(바이올린을 켜다)
- the harp: pincer les cordes d'une harpe = jouer de la harpe(하프를 타다)
- the vielle: vieller, sonner de la vielle = jouer de la vielle(옛 바이올린을 켜다)
- the piano: pianoter, taper sur un piano = jouer du piano(피아노를 치다)
- the guitar: guitarer, gratter = jouer de la guitare(기타를 치다)

② 타악기의 경우

- the drum: tambouriner = jouer du tambour, jouer du tambourin(드럼을 치다)
- the gong: frapper un gong = jouer du gong(‘한국의 징과 유사한 타악기’를 치다)
- the bells: sonner les cloches, carillonner, tinter = jouer des cloches, jouer du carillon(종을 치다)

③ 관악기의 경우

- the small flute: fifrer = jouer du fifre(플룻을 불다)
- the trumpet: trompeter, sonner de la trompette = jouer de la trompette(트럼펫을 불다)
- the military trumpet: claironner, sonner du clairon = jouer du clairon(군대 트럼펫을 불다)
- the clarinet: clarinetter = jouer de la clarinette(클라리넷을 불다)

위 (17)은 불어의 연주동사들의 예를 보인 것이다. ①은 현악기의 연주를 의미하는 동사들인데 바이올린, 하프, 중세시대의 바이올린, 피아노, 기타 등의 연주와 ②의 타악기의 연주, ③관악기의 연주에 밀줄 친 ‘jouer’가 공통적으로 쓰인다. 의미적으로는 [奏]의 의미로 통할 수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각각 ‘타다’, ‘켜다’, ‘치다’, ‘불다’의 동사로 구분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제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한국어의 악기연주동사는 기본적인 신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의미로부터 추상적인 연주동작을 일컫는 용어로 확장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들은 인간의 인지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들의 의미 확대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8)

원형의미	획득의미	확장의미	해당동사
			악기종류
[彈]	지속성	[彈奏]	타다, 켜다, 치다
			현악기
[打]	반복성	[打奏]	치다, 두드리다
			타악기
[吹]	지속성	[吹奏]	불다
			관악기

IV.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어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들을 중심으로 의미의 연관성과 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동사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악기의 특성에 따라 악기의 줄을 누르는 동작, 악기의 줄을 치는 동작, 악기의 줄을 활로 문대는 동작, 악기의 면이나 몸통을 가격하는 동작, 악기의 구멍에 입으로 바람을 부는 동작 등이 해당되는데 동작의 활성 지역에 따라 동사가 세부적으로 선택되는 것은 현악기의 경우이고 타악기나 관악기는 세분되지 않았다. 외국어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구체적인 동작의 의미에서 시작된 연주의미는 [戯]의 의미를 바탕으로 [지속] 또는 [반복]의 과정을 통해 추상적인 [奏]의 의미로 확장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확장기제는 환유의 양상을 보인다.

* 본 논문은 2012.10.31. 투고되었으며, 2012.11.11. 심사가 시작되어 2012.11.30.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민수 편(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 변미혜 · 한윤이 · 김희라(2008), 『국악용어편수자료집1』, 민속원.
- 劉昌惇(1979), 『李朝語辭典』, 延世大學校 出版部.
- 윤평현(2008), 『국어의미론』, 역락.
-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 Bybee, Joan, Perkins, Revere & Pagliuca, William(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박선자 · 김문기 옮김(2010), 『문법의 진화』, 소통.
- Langacker(1984), "Active Zones," *BLS* 10.
- _____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I :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Ullmann, S.(1962), *Semantics :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Oxford: Basil
Blackwell.

악기 연주동사 의미 연구

조일영

인간언어의 근본적인 특성 중의 하나인 다의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데 S. Ullmann은 다섯 가지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적용의 전이, 사회환경의 특수화, 비유적 언어, 동음어의 재해석, 외국어의 영향 등이 그것이다(1962: 159~167). 이 중에서 본고에서는 주로 비유에 의해 발생되는 다의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들 단어들이 다의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 유연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크지 않지만 유연성이 약해질 때는 직관적으로 의미 간의 유사성 또는 관련성을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는 과정을 추적해 볼 때 동일한 의미범주로 묶여지는 단어들 간에는 공통적인 의미 속성이 의미 분화의 경계점이 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의미 분화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고 체계적이 되면 한국어 어휘의미에 대한 교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악기연주동사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연주동작의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에 대해 의미론적 고찰을 함으로써 어휘소들의 범주형성 양상에 대하여 살핀다.

이를 위하여 해당 동사들의 원형의미와 확장된 의미의 비교를 통하여 의미의 확장과정을 살피고 확장의미의 의미범주에 해당하는 동사들에 대하여 의미적 관련성을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들을 중심으로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동사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어에서 연주동사는 기본적으로 악기의 특성에 따라 악기의 줄을 누르는 동작, 악기의 줄을 치는 동작, 악기의 줄을 활로 문대는 동작, 악기의 면이나 몸통을 가격하는 동작, 악기의 구멍에 입으로 바람을 부는 동작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동작의 활성지역에 따라 동사가 세부적으로 선택되는 것은 현악기의 경우이고 타악기나 관악기는 세분되지 않았다. 한편 외국어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결국 기본적인 동작의 의미에서 시작된 연주의미는 [戯]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악기를 대상으로 할 때는 [演奏]의 의미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핵심어 연주동사, 원형의미, 확장의미, 추상성, 환유, 탄도체, 지표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Verbs of playing musical instrument

Cho, Il-young

S. Ullmann had presented five factors of occurrence for polysemy which is the one of fundamental features in human language. That is the transfer of application, speculation of social circumstances, metaphoric language, reinterpretation for synonymy, effects of foreign language. I tried to discuss in this paper, mainly, about the polysemy occurring by metonymy.

When the words get the polysemy, we have not so many troubles for understanding as far as possible its motivation have maintained. But if its motivation is not maintained, we have to endure many of difficulties in pursuit of similarity or relation between meanings.

We can assume that the common features of meaning may be the boundary of differentiation of meaning by chasing the process of differentiation. So, I think that we may have expectation on the positive effect for Korean vocabulary education if we are awakening to this boundary of meaning differentiation, diversely and systematically.

In this study, I tried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the verbs which is the kind of playing musical instrument and the aspect of categorial formation of those words by semantic consideration for the process of getting meaning.

For the purpose, I examined the process of extending by comparing basic meaning with extended meaning and I checked about semantic relation of those kind of verbs. I examined the verbs which is related on playing musical instrument in the view of semantic relation and cognitive theory.

I classified performing verbs into the percussive verb /tada/, the verb

rubing with bow /kjæda/, the verb with stick /chida/, the verb blowing with mouth /bulda/. In Korean verb, the basic meaning of /tada/ is [彈] in Chinese letter. /kjæda/ is same with /tada/ in Chinese, /chida/ means [打], /bulda/ means [吹]. Those performing verb is selected by activating zone of instrument, in exemple, finger with string, hand or stick with surface of drum, lips with hole of the flute or bamboo oboe. Other foreign languages like English, Japanese, French, German show similar aspects.

And the basic meaning extend to the abstract meaning when those verbs get the meaning [奏] in Chinese as performance.

KEYWORDS The Korean Verbs of playing musical instrument, prototype meaning, extended meaning, abstract, metonymy, trajector, landmark